



(좌측부터) 홍태권 회장, 홍정수 총무, 최재혁 부회장



꿈꾸는씨앗공동체 단체사진

농사짓고, 봉사하고, 노래하는 꿈꾸는씨앗공동체



고양시는 의미 있는 마을살이를 지역 곳곳에 확산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텃밭가꾸기, 학교밖 청소년 모임, 마을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캠페인을 펼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꿈꾸는씨앗공동체'가 있다. 농사짓고, 봉사하고, 노래하는 꿈꾸는씨앗공동체의 주축 3인방을 만나봤다.

글 서충식 사진 이윤성



장항습지 철새 모이주기

장항습지 포럼 공연

Q. 꿈꾸는씨앗공동체(이하 꿈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꿈씨는 작물재배, 생태놀이, 논농사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기꿈의학교 고양어린이농부학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린이농부학교의 수료식을 마치고 이 구성원이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뜻이 맞는 가족들이 모여 작년부터 꿈씨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현재는 총 9가족, 28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Q. 그렇다면 꿈씨는 어떤 주제로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A. 꿈씨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공동육아와 자원봉사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말에 모여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또한 감자, 고구마와 같은 농사 수확물을 청소년센터에 기부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장항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장항습지에 들러 새 모이를 주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캠페인송을 제작해서 공연도 하고요.

Q. 캠페인송을 제작했다니 놀라워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A. 장항습지를 위해 꿈씨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음악 교수인 홍정수 총무의 도움을 받아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죠. 그리하여 '함께 지켜요'라는 제목의 장항습지 캠페인송이 탄생했고, 거기에 울동까지 창작해 아이들이 고양시의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해 정말 많은 행사와 단체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뿌듯)

Q. 혹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꿈씨 구성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지금은 외곽지역에 조성한 비닐하우스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농사, 캠페인송 연습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옛날식이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물론 공동체 지원금이 있지만, 공간 대여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공동체 특성에 맞게 지원금을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해요.

Q. 꿈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공동체 모임은 발전 없이 그 자리에 안주하며 활동한다면 언젠가는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꿈씨는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넓혀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함께 지켜요'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를 현재 제작 중이고,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